



[문] 가정에서 충격이나 출혈 등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 바로 병원에 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만을 갖추고 있어도 치명적인 피해를 감소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1. 충격(속, shock)

출혈, 화상, 골절, 두부손상, 정신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급성 순환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얼굴색이 창백해지며 식은 땀을 흘리고 현기증이 나면 허탈 상태가 되어 의식을 잃게 된다.

*머리와 몸을 수평으로 눕혀주고 머리에 부상이 있거나 호흡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상체를 약간 낮게 하고 다리를 높혀(shock position) 뇌혈류를 증가시켜 의식장애를 최소한으로 줄여준다.

*가슴에 부상을 입거나 호흡이 곤란한 경우는 상체를 높혀 호흡을 도와준다.

*몸을 따뜻이 하여 체온상실을 방지한다.

*갈증을 호소하더라도 따뜻한 물로 목을 축이게 하는 정도 외에는 음식을 시키는 것이 좋은데 이는 의식장애가 있거나 의식장애가 올 수 있는 경우 구토로 인한 질식 또는 흡인성 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수술을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공복상태를 유지한 후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출혈

*출혈부위를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직접 압박하여 지혈시킨 후 압박붕대로 감아준다.

*출혈부위를 높게 올리며, 지혈되지 않는 경우는 지혈대를 사용하여 출혈부위보다 높은 곳에서 압박 하는데, 잘못 지혈대를 사용할 경우는 오히려 대량 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다.

3. 화상

화상은 정도에 따라서 1도, 2도, 3도 화상으로 구분되는데 어느 경우이든 감염과 속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깨끗한 찬물에 화상부위를 담그거나

끼었어서 식혀준다.

- *상처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고 물집이 생긴 경우 이를 터트리려 해서는 안된다.
- *불에 타서 몸에 붙은 의복은 병원에 가기전에는 억지로 떼어내려 해서는 안된다.
- *화상이 심한 경우는 속상태로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4. 골절

- *병원에 운반할 때까지 가능한한 골절된 양쪽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나무원이나 막대 등을 이용하여 골절 부위를 고정시킨다.
- *속에 대비해야 한다.

5. 경련

- 간질발작, 두부외상, 수막염, 일사병, 가스중독 등이 원인이 되며 유아의 경우는 고열로 인하여 오는 경우가 많다.
- *경련하는 동안 이를 억지로 제지하려 하는 것은 위험하다.
 - *경련하는 동안은 의식이 없으므로 다칠 수 있는 위험물은 제거해야 하며 혀를 깨물거나 구토물질 등에 의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스푼에 깨끗한 헝겊을 감아 혀를 누르듯하여 입에 물린다.
 - *구토시에는 목을 옆으로 돌려주어 이

물이 기도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준다.

- *경련후 조용히 눕히고 의복의 단추와 벨트를 풀어준다.
- *열성경련의 경우 옷을 완전히 벗겨주고 미지근한 물로 계속 닦아주어 체온을 떨어뜨린다.

6. 약물중독

- *독물이 더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먹은 것을 토해 내도록 해준다.
- *병원에 갈 때에는 환자주변을 잘 살펴 먹은 약의 용기나 남은 약을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7. 감전

- *세탁기나 텔레비전에 감전되었을 때에는 플러그를 잡아챈다.
- *고압선에 감전되었을 때에는 건조한 전열체 즉, 나무와 플라스틱 위에 올라가 나무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환자로부터 전선을 분리시킨다.
- *심장이 멎거나 정지 하였을 경우에는 심장 마사지와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이상으로 소개한 것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일 뿐 치료의 모든 것이 아니므로 위의 방법을 실시하면서 환자를 병원으로 운반하여 보다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 수 있다.

(근협 서울지부부속의원장 이증범 박사)